

“63세 나주시민은 대상포진 백신주사 반값에 맞는다”

최대 18만원 달한 백신접종 비용 나주시 50%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무료 접종

나주시가 대상포진 백신 반값 접종에 이어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3세로 낮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63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대상포진 백신접종 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면역기능이 저하하면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하면서 발생한다. 주로 고령의 노약자층에서 발병률이 높고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퍼지면서

극심한 통증과 발진을 일으키며 40대 이상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백신접종을 하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접종 비용이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에 달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접종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나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대상포진 백신접종 비용을 50% 지원하는 파격적인 시책을 추진 해오고 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전액 무료 접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지난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 시민은 총 4392명에 달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63세로 낮춤으로써 백신접종 수혜 대상자는 2만8000여명에서 3만2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백신접종 비용 지원은 기존 접종자는 제외되며 대상포진을 앓은 환자는 회복 후 6~12개월 내 보건소나 관할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된다. 일반 시민은 주민등록초본, 사회적취약계층은 주민등록초본과 증빙서류를 보건소 방문 시 지참해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망설였던 시민들이 접종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63세 이하



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접종률 향상을 위한 홍보와 백신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공군 1전비, 지역아동센터에 격려품 전달

미래 항공우주 주역인 초·중등 학생들 위한 간식 선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은 3월 26일 부대 인근 지역아동센터 7곳을 방문해 200여명의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과자·음료 등의 격려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와 공군 간의 유대감을 강

화하고, 신학기를 맞이한 미래 항공우주 주역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1전비 전대만(대령) 감찰 안전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새로운 학교생활을 응원하고자 부대 인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전비는 이번 활동과 더불어 평소 기지 인근 경로당 위문활동, 보훈요양원 자원봉사, 봄철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 임병택 기자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 본격화’...마을돌봄센터 구축

족방촌 거주자 위한 ‘들랑날랑센터’ 개소



광주시가 마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 2’를 본격화 한다. 광주시는 마을 돌봄공간을 중심으로 ‘관계돌봄’을 구축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 2’를 운영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마을돌봄은 우선 동구 대인동에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문을 열고 시작한다. 대인동 일대는 여인숙과 모텔 족방촌 등이 많고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달방 거주민의 98%가 중장년 이상 1인 가구이며 82.5%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락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54.6%이며 도움을 요청할 이웃조차 없다는 응답도 56.3%나 돼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랑날랑 센터’는 누구나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유공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족방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

는 식사, 세탁실, 상담, 안부살핌, 일자리 관련 연계 등을 지원한다. 또 서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돌봄교실’이 마련되며 남구에는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 공간, 북구에는 ‘우리동네 건강마을돌봄’ 사업, 광산구에는 ‘마을밥 카페’와 ‘건강관리소’ 개소가 추진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 1일 돌봄 지원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 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해 9개월 만에 9000여명의 시민들에게 1만 8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로 광주형통합돌봄 모델은 전국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올해 ‘광주형통합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을 현 중위소득 85%에서 90%까지 확대했으며 긴급돌봄 대상도 100%에서 120%로 늘려 올해 두달여동안 4000여명의 시민이 이용했다. 서선욱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이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